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관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목표와 동기가 다릅니다.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쫓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운명이 있다 생각하고 '운명이다' '팔자다'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으로 삽니다. 원치 않는 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합니다. 나가고 싶지 않은 직장에 나갑니다.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모든 일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고,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판에는 이것을 책임이라고도 하고, 의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발을 매는 소만 코뚜리 꿰인 것이 아닙니다. 덩미를 잡힌 채, 먹살을 잡힌 채 하릴없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은 생을 부득불 사는 것 같은, 그런 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늘상 뜬구름 잡자는 듯이 삽니다. 현실이나 객관적 사실은 무시하고, 뭔가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허황하게, 무지개 잡으러 가는 소년처럼 삽니다. 나름대로 세운 이상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나름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그리고 세워놓은 꿈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평생 이 다하도록 아직도 이루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될 줄로 알고, 실망 절망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쫓아가는, 이른바 이상지향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본래성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론적 운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과 큰 경륜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과거도 하나님께 있고 미래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입니다. 오늘의 내 현실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과 경륜과 음성과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한 현실 속에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사는 성인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 한해 반이 넘어 후반으로 달려갑니다.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❷ 7월 중보기도카드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독교 악법(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생활동반자법 등)이 저지되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❸ 매주 수요일에 거리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의 생명 구원에 한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번 주 식당봉사 - 5셀

▶ 다음 주 - 6셀

◆ 7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7/2	맥추감사주일
7/29~30	청소년부 하계수련회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